



“16강... 꼭 이루고 오겠습니다”

일본을 2-0으로 꺾고 한·일 정지전 승전보를 올린 허정무호가 25일 월드컵 원정 16강을 꿈꾸며 도쿄 나리타 공항을 통해 오스트리아로 전지훈련을 위해 출국하고 있다. 맨 왼쪽부터 허정무 감독·박지성·박주영·이청용·기성용·이영표 선수. /연합뉴스



남아공 월드컵 D-16

산소마스크 쓰고 1200m 고지대 훈련

허정무호 월드컵 전초기지 오스트리아 전훈련프로 출발
30일 벨로루시와 평가전 ... 최종엔트리 23명 결정 무대

이승렬 주목

월드컵 홈피 신인왕 후보 꼽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축구대회 인터넷 홈페이지가 한국 대표팀 공격수 이승렬(21·FC서울)을 '주목할 젊은 선수'로 꼽았다.



대회 홈페이지는 25일 월드컵 신인왕 격인 '현대 베스트 영 플레이어 어워드'에서 주목할 선수로 이승렬을 넣고 '불과 2년 전만 해도 프로팀에서 뛰지도 않던 이승렬이 지금은 월드컵 출전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승렬은 16일 에콰도르와 평가전에서 선제 결승골을 넣은 데 이어 24일 일본과 경기에서도 후반 교체 투입돼 위력적인 슈팅을 날리는 등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지금까지 영플레이어상 후보로 거론된 선수는 모두 20명으로 대표팀에서는 이승렬 외에 기성용(21·셀틱)이 있었다. 아시아권에서는 이승렬과 기성용 외에 북한의 주광민(20)도 포함됐다.

한국과 같은 B조에서는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파스토레(21·팔레르모), 그리스의 소티리스 니니스(20·파나티나이코스)가 주목할 젊은 선수로 꼽혔다. /연합뉴스

72번째 한일전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둔 축구대표팀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전초 기지인 오스트리아로 출발했다.

축구대표팀은 25일 일본 나리타 공항을 떠나 독일 뮌헨을 경유해 전지훈련 캠프인 해발 1200m 고지 오스트리아 노이슈티프트로 출발했다.

대표팀은 오스트리아 전훈련캠프에서 벨로루시(5월30일) 및 스페인(6월4일)과 두 차례 평가전을 치르고 나서 내달 5일(한국시

각) 월드컵 베이스캠프인 루스텐버그에 입성한다.

오스트리아 전지훈련에서 대표팀은 고지대 적응과 더불어 월드컵 본선 무대에 나설 23명의 최종엔트리를 확정하는 중요한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대표팀은 이번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에서 아르헨티나와 해발 1753m의 고지대

인 요하네스버그 사커시티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치른다. 이 때문에 고지대 경기 경험이 적은 대표팀은 파주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 저산소방을 설치해 선수들에게 고지대의 상태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왔고, 오스트리아 전지훈련부터 산소량을 조절할 수 있는 산소마스크를 선수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오스트리아 전훈련이 중요한 이유는 23명의 최종엔트리를 확정하기 때문이다. 허정무 감독은 지난 19일 30명의 예비엔트리에서 4명을 추려냈고, 내달 2일(한국시각) 오전 7시까지 국제축구연맹(FIFA)에 23명의 최종엔트리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허 감독은 오는 30일 벨로루

시와 평가전에는 정예멤버보다 후보군을 대거 출전시켜 주전 경쟁의 마지막 범점을 찍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허 감독은 이날 오전 오스트리아로 떠나기에 앞서 최재진과 만나 "벨로루시와 평가전은 A매치가 아니라 평가전을 듣더라도 상관없다"며 23명 최종엔트리 결정의 마지막 선수를 평가하는 무대로 삼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벨로루시 평가전을 바탕으로 허 감독은 23명의 엔트리를 확정하고, 내달 4일 새벽 스페인과 최종 평가전을 통해 월드컵 본선 무대에 나설 베스트 11을 결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25일 (한국시각) 오스트리아 알타흐 캐시포인트 아레나에서 열린 북한대표팀 훈련에서 선수들이 게임을 하며 몸을 풀고 있다. /연합뉴스

월드컵 참가팀을 오스트리아로 몰리는 까닭은

고지대·시차 남아공 판박이

최종 리허설지로 각광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개막은 보름여 남아지만 이미 오스트리아에서는 월드컵이 막을 올린 분위기이다.

오스트리아로 팀들이 몰리면서 자연스레 스카피리 상대가 가까이 생겼다 보니 평가전도 자주 열린다. 그리스와 북한이 평가전을 치르기에 앞서 E조의 카메룬이 그루지야를 불러 26일 오전 리엔츠에서 친선경기를 벌인다.

한국의 평가전 상대인 벨로루시는 28일 오전 월드컵 본선 H조의 온두라스와 빌라호에서 대결한다. 29일 클라겐푸르트의 비르테르스 스타디움에서는 카메룬(E조)-슬로바키아(F조), 뉴질랜드(F조)-세르비아(D조)의 월드컵 본선 참가국간 맞대결이 연이어 펼쳐진다. 월드컵 본선에서 한 조에 속한 슬로바키아와 뉴질랜드는 멀리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서로 전력을 엿볼 수 있게 됐다.

26일 오전 알타흐에서 그리스와 평가전을 치르는 등 다음 달 1일 남아공으로 출발하기 전까지 오스트리아에서 훈련을 계속한다. 월드컵 본선 진출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출국들이 전지훈련 장소로 오스트리아나를 선호하는 것은 남아공과 같은 시간대를 사용해 시차 적응을 할 수 있고, 고지대 적응 훈련에도 적합해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서다.

44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오른 북한 대표팀은 지난 10일부터 스위스에서 훈련한다. 24일 오스트리아로 건너와 도른비른에 새 캠프를 차리고 다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26일 오전 알타흐에서 그리스와 평가전을 치르는 등 다음 달 1일 남아공으로 출발하기 전까지 오스트리아에서 훈련을 계속한다. 월드컵 본선 진출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다음'서 월드컵 인터넷 중계

지상과 방송 3사의 2010 남아공 월드컵 중계권 협상이 실패한 가운데 인터넷 중계권 협상은 타결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월드컵 중계권을 가진 SBS는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인터넷 중계권 판매 협상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SBS와 다음은 15억원 안팎에서 중계권 판매에 동의한 뒤 공식 발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예초 SBS는 다음 측에 30억원 안팎의 중계권료를 요구했으나 다음 측이 난색을 보여 가격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北 정대세 “G조 16강은 브라질·북한”

북한 축구대표팀의 간판 스트라이커 정대세(26·가와사키)가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북한이 브라질과 함께 '죽음의 조'에서 살아남을 것이라는 희망을 이야기했다.

정대세는 25일 오전(한국시각) 오스트리아 알타흐의 캐시포인트 아레나에서 열린 북한 대표팀의 훈련에 참가하고 나서 한국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남아공 월드컵을 준비하는 자세와 각오 등을 밝혔다.

정대세는 남아공 월드컵 이야기가 나오자 "매 경기 골을 넣고 싶다"고 말하고 나서 "특히 브라질·포르투갈과 경기에서는 꼭 골을 넣고 싶다"고 덧붙였다. 브라질은 세계 최강팀이기 때문에, 포르투갈은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 8강에서 북한이 패한 팀이기 때문에 설욕하고 싶다는 것이 이유였다.

정대세는 이어 'G조에서는 어느 나라가 16강에 오를 것 같은가?'라는 질문을 받자

환하게 웃으면서 "우리랑 브라질이 16강에 오를 것이다"고 주저하지 않고 말했다.

정대세는 또 "우리도 남아공이 제일 약하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팀에는 없는 것을 가진 좋은 팀이다. 정신력과 단결력, 신뢰 관계가 다른 나라보다 훌륭하다. 선수들도 빠르고 작은 움직임이 좋다. 게다가 독일보다 더한 정신력을 갖고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